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2

2010년 2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洪元基 인쇄인 신명옥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02)2001-7621

E-mail : kjcl405@hanmail.net

Fax 02)730-1270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87호

言論창달-社會발전 元老역할 다짐

大韓言論人會 새출범... 17대洪元基회장 취임

대한언론인회는 1월 2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제 24차 총회에서 회장

에 단독 입후보한

홍원기 회우를 회

장으로 선출했다.

단독 입후보로

정관에 따라 당선자

가 된 홍 후보를 참석

자들은 박수로 만장일치

당선을 확정했다.

홍원기 신임 회장은 김성

배, 윤기병, 이병대, 이태영,

정기정 회우를 부회장에 추

천해 박수로 동의를 얻었고

두 세명의 회장 상담역(추후

위촉)을 두기로 하고 감사에

김호기, 송효빈 회우를 천거

해 역시 박수로 동의를 얻어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홍 회장은 새 이사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선정해 2

월 회보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동의를 구해 위임받았다.

홍원기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대한언론인회

는 사회 원로로서 자유언론

의 창달과 언론산업의 발전

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또 그래야 한다”고 본회의

지표를 밝혔다. 홍 회장은 또

대한언론인회가 폭넓은 활동

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확충과 수입증

대를 제1과제로 삼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

는 만만치 않은 난제라며

회원들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반 안전 처리에 이어

회장 선거 전에 조창화 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임

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대한언론

인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재임 중 회보를 통해 건전한 보수 정

론으로서의 정치적 가치를 분명하게 내

세운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언론인장, 건강포럼

등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것

도 보람이었지만 특히 대한언론인회 사

상 처음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회장이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 될 것
이라면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3년 임기 단임의
회장을 임기 3년차 초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목표로 우편 조사를 한 결과 약 20%
정도의 반대 의사가 있어 만장일치를
기대했던 목표와 달라서 상정 자체를

유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날 총회는 먼저 오건환 상임이사의
성원보고에 따라 조창화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조창화 회장은 총회 인사를 뒤로 미
루고 곧바로 안전 처리에 들어가 회무
보고를 받고 2009년도 감사보고에 이어
2009년도 결산, 2010년도 사업계획, 예
산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윤익한 감사는 감사보고
서를 통해 16대 집행부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
울이면서도 대한언론인회
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회원의 서비스 향상 등을
이룩한 점을 치하하고 특히
회보가 보여준 변화의 모습
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참석 회원들은 모든 안전
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면서
박수로 승인했고 감사보고
뒤에 김영호 회우는 집행부
의 예산절감 노력과 그동안
중단됐던 기금이자의 적립
을 다시 시작하데 대해 박
수를 보낸다고 말해 회원들
의 환호를 유도하기도 하는
등 축제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총회는 참석자도 예
상보다 많았고 회장 선거도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정된
탓인지 시종일관 박수와 환
호로 안전이 처리됐으나 결
산 보고 때 박실 회우가 예
산을 초과집행한 데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
해 조창화 회장이 직접 설
명에 나서 우리 예산의 특
성상 광고를 통해 집행하는
지출 행태 때문이라고 이해
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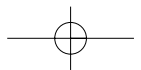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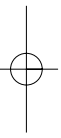
또 신임 홍원기 회장이
감사를 천거한데 대해 김화
회우가 집행부를 감시, 감
독해야할 감사를 회장이 지
명할 수 없다고 지적해 회
원들이 지명이 아니라 추
천한 것으로 이해하자고
말하면서 역시 박수로 선
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 회장을 선출하는 다
른 총회와 달리 시종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탓인지 통상 두
시간 이상 걸리던 총회는 한 시간 만에
끝나 인근 랑데부 호프집에서 진행된
뒤풀이는 예약시간보다 한 시간 전에
시작돼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도 60여명
의 회우가 참석해 두 시간동안 흥겨운
시간을 가지면서 우의를 다지기도 하고
신구회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

오건환 상임이사記



1월 2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정기총회. (왼내: 홍원기 신임회장)
(사진촬영: 이보길 편집위원·심재복 회우)



회우소통 架橋役 ‘김숨’ 다 하겠다

大韓言論人會를 이끌 얼굴들

회 장 洪元基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졸업
1.한국일보사회부기자, 동 차장
2.한국일보 상무이사
3.한국신문협회판매협의회 회장
4.한국ABC협회이사겸공사제도위원장
5.서일대학 출판정보학과 강사

현재

1.한국일보감사
2.CBS노컷뉴스상임고문

수상

2004년 서울언론인클럽특별언론인상수상

저서

1. 신문과세일즈맨십
2. 90년대 신문경영(광고, 판매)
3. 신문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4. 신문인생 50년

감 사

송효빈(전한국일보 주일특파원,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호기(전한국경제사회부장, 대우증권상무)



송효빈(왼쪽), 김호기 감사.

부회장

김성배(전대한일보 기자, KBS보도제작국장)
윤기병(전중앙일보기자, 정무장관실 1차관)
이병대(전동아일보기자, KBS보도제작국장)
이태영(전중앙일보 편집국 색션국장, KOC위원)
정기정(전서울신문 월남특파원, 마산MBC사장)



왼쪽부터 이태영, 정기정, 윤기병, 김성배, 이병대 부회장.

위원회

-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박기병(전 부산일보 정치부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 복지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박명근(MBS보도국 기자, 해병대전우회고문)
- 법규위원회 위원장=이상갑(전KBS 경제부장, 동 해설위원)
- 사이버위원회 위원장=맹태균(전조

- 선일보편집부차장,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 원로위원회 위원장=김진섭(전중앙통신편집국장, 원로체육인동우회회장)
-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홍승국(전동아일보기자, KBS편집부장)
- 자문위원회 위원장=박영길(일간스포츠편집국장, 한국편집미디어협회장)
- 전문위원회 위원장=정형수(전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주일한국대사관공사)

회장 상담역



김은구

• 전조선일보기자
KBS경영본부장



윤익한

• 전코리아헤럴드 기자
편집국장, 동 전무



한기호

• 전한국일보기자
전문신문협회회장

이 사



정운중

• 상임이사
• 전경향신문논설위원



김경태

• 전서울경제편집부국장
현암기금 이사장



김영효

• 전한국언론인금고상임이사



김해도

• 전한국일보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사무총장



도준호

• 전조선일보논설위원
• 명지대초빙 교수



박 실

• 전한국일보정치부차장
한국기자협회회장



심의표

• 전KBS해설위원
KBS비즈니스감사



안중우

• 전연합통신편집부국장
• 다보기회 감사



안평선

• 전KBS춘천방송총국장
• 한국방송인회상임부회장



유자효

• 전SBS보도제작국장
•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윤석웅

• 전 매일경제 증권부장
제일경제편집국장



정두진

• 전CBS보도국장
동 전무



최귀조

• 전한국경제편집부국장
• 평화언론포럼감사



한중광

• 전KBS유통총국장
• 한림대겸임교수

- 특별사업위원회 위원장=권영국(전 CBS해설위원장, 강원일보전무 겸 서울지사장)
- 행사집행위원회 위원장=이보길(전 KBS홍보부장, 오메가텐더사장)
- 홍보위원회 위원장=신동식(전서울신문편집부국장, 한국여성언론인연합회 대표)
- 편집위원회 위원장=성낙오(전동아일보편집국장대우, 영남일보사장),

- 편집고문=김해도(전한국일보사회부장, 동논설위원)
-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김의수(내외경제증권부장, 신라CC사장)
- 논설위원회 위원장=이형균(전경향신문편집국장, 한국PR협회회장)
- 논설고문=문명호(전동아일보논설위원, 문화일보 논설주간)

경륜-능력살려 새 里程碑세우자

洪元基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우선 영예로운 대한언론인회 제 17대 회장선거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단일후보로 당선시켜 주신 회우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대한언론인회 운영에 있어서 회우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는 또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 기술적인 진보를 앞세운 영향력과 무한경쟁에 들어선 변화라면, 신문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문업계는 근대적인 의미의 신문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유독 한국의 경우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비할 바 없이 큼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이 1998년 말 현재 64.5%이던 것이 지금은 31.5%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하락세는 쉽게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달아 자립경영을 좌우하는 광고의 이탈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우리 신문에는 주장만 있고 사실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신문은 무료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언론의 극성은 신문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일간신문은 1980년 언론통폐합 때 28개사 이던 것이 현재는 222개사에 달합니다.

지역신문과 무료신문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보다 많고 영국보다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우리 대한언론인회는 이러한 변화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외면하거나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원로로서 자유언론의 창달과 언론 산업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신 풍부한 경륜과 폭 넓은 경험을 이제는 우리 언론과 사회를 위해서 쓰셔야 할 때라고 단언합니다.

혹시 '나이'를 의식해서 이런 역할에



부정적이거나 망설일 수도 있겠으나 나이의 많고 적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 부립 의과대학 야마다 히로시 교수는 "사람에게는 호적연령과 기능연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적연령은 글자 그대로 호적에 등재된 나이를 뜻하고 기능 연령은

신체적 연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연령과 기능연령은 일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교수는 호적연령이 65세 일 때 기능연령은 57세에서 73세, 73세 일 때는 66세에서 84세로 그 차이가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젊고 늙음은 호적 연령으로 세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떻든 나이가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뿐 아니라 경륜과 능력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활기 있게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언론인회는 회비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 시피 10억원을 기금으로 하는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이자율이 떨어져 이제는 연 4%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언론인회 기금 확충과 수입증대를 제1과제로 삼고 뛰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난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언론인회 창립이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온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후생복지 부문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줄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언론회보는 이미 밝힌 대로 현 기조를 유지하되 회원중심회보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언론인장은 회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보완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인]

趙昌化 회장 퇴임사

이임을 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4개월의 재임 동안 저만큼 회우들의 사랑과 격려를 분에 넘치게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570여명의 회우들이 저에게 쏟아 부어 준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잠시도 쉬지않고 몸을 던져 뛰도록 했습니다. 힘 든 줄도 모르고 신명이 나서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5시20분의 첫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산본으로, 일산으로 뛰면서 치른 言論人葬은 항상 고마워하는 유족들의 격려로 피곤한줄을 몰랐습니다. 재임중 치른 12번의 언론인장은 지금 제 뇌리에 오히려 아름다운 장송곡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재임중 20회를 넘긴 건강강좌도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회우들이 참석해서 매번 30여명이 넘는 회우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번은 상임 감사이신 이 운수박사께 부탁하여 유명한 발기제를 돌린적이 있는데 80이 넘는 한 회우가 왜 나한테는 안주느냐고 고함을 치는 촌극도 이 모임이 아니면 볼수없는 정경이었습니다. 소문이 나다 보니 만나는 회우마다 그거 하나 달라는 바람에 시달린 것도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지난 해 10월 1박2일로 지리산 인산가에서 건강강좌를 열때도 45명 선착순이라는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이 오는 바람에 2대의 버스를 전세 낼 수밖에 없었고 예산은 2배로 뛰고 말았었죠.

08, 09년 연말에 실시한 회우들에 대한 전립선 검사 때 마다 160 여명의 회우들이 모여든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가운데 일곱분의 회우가 암으로 판정되어 수술을 받아 완쾌 된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립선협회의 권성원 회장님, 김세철 박사님, 이운수 박사님 수고하셨고 감사 합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일년에 4번 하게된 역사탐방, 체력 단련도 항상 인원이 초과되어 예산을 꾸리느라고 머리를 썩인것도 다 회우들이 저에게 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산은 항상 모자랐고



구명난 예산을 메우느라고 이리 저리 뛰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말라"하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변통을 했든간에 구멍은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대한언론인회의 회보 '大韓言論'의 논조에 대해선 많은 회우들이 열렬히 지지해주었지만

소수의 회우들이 너무 보수편향이 아니냐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선 앞으로 회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 해 봅니다. 다만 재임중 최고의 편집진용과 편집위원들을 확보해서 취재와 집필을 동시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의 집필진을 한국최고의 진용으로 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존 최고급의 필자와 토론자를 동원했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비도 안되는 사례에도 육고와 토론을 맡아주신 사회 원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유능한 집행부와 편집진용, 편집위원들 속에서 제가 할 일은 그들을 지원하는것 뿐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33년의 대한언론인회 역사에서 제가 맡았던 2년은 한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2년의 짧은 기간속에서 제가 기울였던 노력이 언론인회에 새 바람을 불어 넣으려 했던 것이었다고 평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인]

太平路 만평



경쟁·반목없는 선출축제 정착되기를...

· 심재복(본회회우)

司法府 튜는 판결 더이상 안된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용산사건 수사 기록 공개,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피디수첩 광우병 프로그램팀에 대한 무죄판결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좌편향 판사에 의한 편파적인 판결로 보는 반면, 이른바 진보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면서 판결을 적극 옹호한다. 일부보수단체회원들은 더 나아가 담당판사의 집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판결이 좌편향 판사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4인의 재판장 중에 좌편향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적은 옳지 않다. 이들 잘못된 판결인 이유는 좌편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상식을 무시한 채 법관 개인의 소신을 앞세운 판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좌우이념갈등으로 묻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말이 있으니 판결은 증거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비판해야 한다. 판사의 평소 성향을 거론하면서 판결을 비판하거나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판결의 문제점

용산사건의 재정신청사건에서 수사기록을 변호인들에게 공개한 사건을 보자. 이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이 검찰기록을 다른 사건의 변호인에게 넘겨준 것이 문제다. 재정신청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서 수사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기록공개가 금지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용산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미공개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검찰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재정사건 재판부는 검찰의 불응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응징한 셈이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서 그랬다지만 재정신청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은 위법이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으니 위법한 재판임이 명백하다. 검찰이 반발할 만하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만 5,000명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운하 중단, 촛불집회 수사 비판 등의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간부들이 정치운동금지 등의 죄로 기소되었는데, 전주지법이 최근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현안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라면 출마라도 해야 정치활동이 되는 것일까. 대법원판례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다. 법원이 이렇게 터

무니없는 판결을 수시로 내 놓으니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들 수백 명이 민노당에 입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은 한술 더 뜬다. 국회 사무총장이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이미 읽었으니 스크랩하지 않은 신문을 읽는 것은 공무수행 중이 아니라거나 강 의원이 항의할 목적으로 국회 경위의 먹살을 잡았으니 폭행이 아니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서 타자가 넘어지는 것을 몰랐으니 공용물건손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같은 남부지법에서 민노당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강의원 사건 역시 공소기각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개인보다 ‘法官의 양심’ 따라야 ‘경력法官制’ 도입 앞당길 필요

MBC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끝을 장식했다. 얼핏 보면 언론의 자유를 높이 산 판결인 듯 하지만 실상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확신에 집착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만 살펴보자.

우선 광우병과 무관한 다운너(downer)소 동영상 틀어놓고 광우병에 걸린 소들인 것처럼 방송을 하고, 진행자가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이 허위방송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래 있는 영문과 자막은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다.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번역: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
방송자막: 우리 딸이 걸렸던 병

빈슨의 어머니: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특별기고



이 재 교

- 변호사
- 공정언론 시민연대 공동대표

번역: “아레스가 만약 인간광우병에 걸린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자막: “아레스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주 보건당국 문서: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

번역: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포츠머스 여성의 병에 대한 조사

방송 자막: 보건당국자료 vCJD 사망자 조사

아레스 빈슨의 어머니는 딸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인지 확실하지 않은 채 가능성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발언하고 있지만 방송자막은 한결같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오역이 되었다. 과연 이게 오역일까?

더욱이 미국에서 아레스 빈슨의 사인으로 의심되었던 것은 인간광우병 만이 아니었다. 피디수첩 프로그램이 방송된 2008년 4월 29일 당시에는 인간광우병보다는 다른 사인에 더 무게가 주어졌다. 그런데 피디수첩은 오로지 인간광우병이 마치 유일한 사인 후보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위와 같이 오역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와도 어긋날 판결이 나온 것일까?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법률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다. 이는 전문가적인 직업적인 양심으로서 개인적 양심과는 구별된다.

두 양심이 보통 일치하겠지만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법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법관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게 될 경우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한다. 개인적 양심으로는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현행 병역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법관의 양심으로 유죄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양심이 충돌할 경우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법관의 양심을 우선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개인적 양심보다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실상,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을 갖춘 판사는 결코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이라고 한다. 결국 최근 무죄판결사태의 근본원인은 판사의 자질과 품성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경력법관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경력법관제는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하여 각 분야(변호사, 검사, 행정부 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경력자 중 법관에 적임이라고 평가받는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임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건전한 상식과 균형 감각에 둔다면, 자연 그런 품성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니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올 우려가 거의 없게 된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반면, 현재 우리 제도는 관료(도제) 법관제인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한 다음 선배 법관 아래서 배석판사로 배우는 형태다. 법관의 자질과는 거의 무관하게 성적순으로 임용하다보니 법관의 기본자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도 임용될 수 있는 것이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세종市 — 政治人반성 解法 찾아야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대포를 쏘아 대던 날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선 친이 친박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민주당은 입법저지를 위한 선전포고를 했으며 당직자들이 머리까지 깎은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도 결사항전의 태세다.

원자 폭탄까지 등에 업은 북한의 위협보다는 정치권의 예고된 난투전이 더 두려워진다.

개인적으로 세종시에 대해 불만이 많다. 세종이란 성군의 이름을 땔으면 그에 걸맞게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이미지로 가꿔야 할 터인데 되레 갈등이요 분란이요 내 명분만 챙기려는 패거리들의 뺨발 난투극 형국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 하면 거론되는 충청민심에 대해서도 못 마땅하다. 나 자신 충청인이기에 충청하면 충절과 청렴의 이미지로 간직되기를 소망하는데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청하면 팔시 받고 무시당하는 고장, 그래서 억울해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안간힘 하는 사람들로 치부되는 것 같고 급기야 충청권의 내부 갈등까지 빚어내고 있어 부아가 치민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더욱 미워진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만들고 키웠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논리와 담론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계층과 지역별로 모두가 나름대로의 계산과 생각이 있고 여기에 정치인들의 현란한 말장난에 온 나라가 놀아나다 보면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고심하던 중 한 교양 철학책에서 읽은 ‘오캄의 면도날’이란 말이 생각났다.

중세 영국의 철학자요 수도사였던 오캄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현대에서는 “불필요한 가정을 늘어놓지 말아야 하고 설명은 단순 한 것일수록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를 오캄의 면도날로 쉽고 간단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세종시 문제들을 간추려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

첫째는 세종시가 어떤 종류의 도시가 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하나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만들고 당시 정치권이 추진한 이른바 세종시 원안이라고 하는 ‘행정중심도시’와 이명박 정부가 건설하겠다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대학, 대기업들이 입주하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의 충돌이다.

그리고 충돌의 핵심 문제는 원안대로 행정부의 9부2처2청이 행정시로 옮겨가게 되면 행정 비효율과 낭비 등으로 국가 백년대계에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미 늦기는 했지만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2003년 노무현 후보가 충청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득표 전략의 하나였으며 이는 같은 해 11월6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회의에서 “신 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내가 지난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수도이전 약속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찬성과 그 후의 행보도 모두 정치 상황에 따라 득표 전략의 하나로 이뤄졌고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음 대권행보나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언론자체가 이런 정치상황을 유도하고 거기에 몰입돼 있는 것 같다.

셋째는 정치인들의 자기반성이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 유력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말고 누구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잘못했다거나 사과한 일을 들은 기억이 없다. 공자께서도 일일삼성(一日三省)이라고 가르쳤는데 오늘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허물없이 완벽한 인물들인 모양이다. 도대체 반성과 관계가 없는 무오류(無誤謬)의 사람들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반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박근혜 전 대표도 반성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들도 반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당자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神)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는 득표 전략에서 비롯된 당리당락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문제의 해결은 관련 정치인 모두가 기탄없이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양심적이고 건전한 정치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웬만한 일로는 어느 정치인도 조금도 양보할 생각도 의식도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행정력과 경비를 낭비하고 국민의 근심을 키우지 말고 빨리 결말을 내라고 건의하고 싶다. 책임자를 문책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로 직접 심판을 받든지 말이다.

정치인들은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할 생각도 없고 그런 재목도 안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발 정치인들에게 국민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도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말로 힘들어 하고 짜증나고 정치인들이 주도할 미래를 두려워 한다.

세종대왕이 오늘의 세종시 상황을 보신다면 통곡을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군왕검이 가르치신 홍익인간의 정신을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한번만이라도 되새겨 주길 바란다. [국문]

국가 미래보다 票의식한 행태 국민투표로 직접심판 결말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정부부처 이전을 수없이 약속했고 법으로 까지 정해 추진하던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 지키면 배신행위가 되고 국가 지도자들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엇보다 큰 국가의 재앙이요, 계수 할 수 없는 해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동시에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봉합되지 않고 갈등이 온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가?

우선 정치인들이 자기 정파이익에 함몰돼서 나라 생각보다는 당파싸움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해악이 세종시 수십 개를 들어먹는 아니 그보다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정치인들은 민족사에 능지처참할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는 세종시 문제의 태생과 추진 동기가 불순했다.

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자유롭지 못했으며 후보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던 공약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다.

이런 문제들은 투표의 결과로 지도자를 뽑는 대의정치의 한 모순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보겠다.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를 뽑기 보다는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평가하는 대중의식이 바로 잡히기 전까지는 옥(玉)의 티로 참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를 표치(票治)란 조어로 바꾸는 것이 보다 우리의 정치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정치인들에게는 표(票)가 최우선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최고의 가치이다. 그 다음이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당이고 그 다음에야 국가나 민생이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정치 지도자들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

4면에서 이어집니다.

차제에 경력법관제의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어 이제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형사단독판사를 가능한 한 경력이 많은 법관이나 부장판사에게 맡기고, 중요사건을 재정합의부에 맡기는 것이 응급 해결책이 될 것이다.

끝으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판사에 대한 인식공격이나 법원에 대한 압력을 삼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담당판사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고, 법원 판사실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로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도 중요하다.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과제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큰 과제가 된다. 판결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 법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나 법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들이 개인적

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단기적으로는 단독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경력법관제를 채택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법감시에 나섬으로써 차후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도록 뜻을 모은다면, 이번의 파동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문]

짚막하게 넘어간 의회폭력무죄 보도

한복을 차려입은 노인 한사람이 탁자 위에 올라 가더니 갑자기 경총경총 뛰기 시작한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연필 꽃이를 집어던지고 찻잔을 걷어 찬뒤 마치 공중에서 부양하듯 두번 뛰어 오른다. 독자 여러분의 눈에도 산한 모습이다. 지난해 1월5일 국회사무총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어디 시중 술집에서 일어난 술취한 한 노인네의 짓거리라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구절을 해석하는 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놓고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기위해 여러가지 해설을 덧붙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해설을 놓고 우리네 서민들은 욕도 하고 술자리에서 안줏거리로도 삼는다.

지난 1월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가 강기갑의원에게 폭행과 업무방해혐의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즉각 항의 하고 나섰고 급기야는 정치권과 법원, 검찰의 대립상황으로 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어떤 사건을 기소할수 있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항의였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한 공영방송들의 보도를 한번 되돌아 보자. KBS나 MBC모두 이 판결 내용과 검찰의 항의 내용을 짚막하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본란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법과 원

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의 보도태도를 지적한바 있다. 이번 판결도 결코 가벼이 다루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일국의 국회의원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한 그의 범법 행위가 분명한데도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시중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일어났더라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이 이와같은 사건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 공영방송들은 과연 이번처럼 간단하게 보도하고 넘어 갔을 것인가. 두공영방송 관계자들은 이와같은 일부





신 대 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 MBC사장

보도태도도 한번 되돌아 보자.

지난 12월30일 두 공영방송은 용산참사가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9시뉴스를 통해 “재개발과정에서 보상 문제등에 관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것”이라며, 공적개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로 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

한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보도하면서 유족들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두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용산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문제나 경찰 대응의 문제일뿐 불법적인 점거와 폭력

용산 참사 ‘문제’ 지적과 대조편견갖고 다룬것은 아닌지...

의 의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우리 사회의 약자(아무리 소수당이라 해도 국회의원을 약자라고 볼수는 없겠지만)들이 관련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편견을 갖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비슷한 사안으로 용산참사문제에 대한 우리 공영방송의

투쟁을 한 농성자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이미 “화염병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 농성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었지 않은가.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2심과 최종심 판결결과를 보아야 알수 있겠지

만, 범법행위는 무시하고, 한쪽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위와같은 보도내용이 혹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한 이번 사건 해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서울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의 영역이어서 개입할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던 기존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가. 공영방송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도적인 문제와 과잉진압의 문제만 지적했을뿐 폐법에 굴복한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보도는 아예 없었다. 불법과 폐법에 굴복한 서울시의 행태가 앞으로 또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 않은가. 서울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무엇때문인가. 시위사망자 5명이 35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반면, 1억3천여만원밖에 받지 못한 순직경찰관 김남훈씨 부친의 말 한마디는 우리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시너 뿌리고 화염병 던진 것은 너 무나 잘못 됐습시다. 하지만 남훈이를 죽게한 사람들을 이제 용서할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서로를 용서해야할 때입니다.” 물론 순진 사람들을 추모하고 또 용서하고,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원로교수(연세대 송복 명예교수)의 한마디를 다시한번 음미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폐법이 지난 10년 내내 실정법에 우위를 점했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OECD국가들중 최하위라고 할수 있다.” 실정법이 폐법에 밀리는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나라는 없다. [1]

세종시 원안고수와 박근혜

“수도의 중심 기능인 행정권이 황량한 신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웠다. 한 해는 촛불시위로, 한 해는 세종시 문제로 허비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제2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지적한 말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충청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충청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어디냐” 질문에 박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친박계가 28.8%로 1위였다. 다음은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21.2%, 이 대통령과 정총리 및 한나라당 친이계17.2%, 이회창 총재 등 선진당 12.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세종시 논란에서 박 전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야당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박근혜블랙홀’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이 발표된 직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알파’ 발언이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왔을 당시 친박계 의원들의 의견은 둘로 엇갈렸다. 일부 친박계 의원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충청도를 설득한다면 박 전대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 예상했다. 대부분 “친박도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 소속으

로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다” 생각을 가진 중진급 의원들이었다.

반면 박 전 대표의 복심들은 “충청민심이 변해도 박 전대표는 바뀌지 않을 것” 단언했다. 예상대로 박 전 대표는 수정안이 발표되기도 전인 1월7일 ‘수정불가론’에 빠지며 박왔고, 정부의 수정안 발표 다음날인 12일엔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됐다”고 한발 더 나갔다.

박 전 대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그가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보는 이유다. 그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 ‘원칙과 신뢰’라

時 論



천 상 기

- 본회 회우
- 경기대 초빙교수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는 명분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친이 진영은 그의 대응을 차기 대선 구도와 연계된 복잡한 함수로 간주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표가 태도를 바꿔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당은 “세종시를 망친 장본인은 박 전 대표”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 박 전 대표는 야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둘째 현 시점에서 충청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더라도 세종시 반대를 외치는 충청권의 정치세력은 박 전 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표가 여론에 밀려 수정안에 찬성하더라도 충청 민심이 통째로 그를 등지지는 않겠지만 야당은 그 틈새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세종시 문제가 여권의 후계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작업이 성공하면 그 공은 이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돌아간다. 박 전 대표 진영이 민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친박 의원들은 “대통령이 박 전대표에게 한 동반자 약속도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말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이 증폭되는 한 후계구도 문제는 복잡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친박 진영에서 후계구도의 주도권을 박 전 대표 스스로가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결국 청와대는 충청권의 여론 추이에 승부를 걸고 있지만 박 전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단 순히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때에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확립, 충청도에서 확고한 지지기반 확보, 대권 경쟁자인 정운찬 국무총리의 낙마 가능성 등의 효과도 챙길 수 있다. [2]

언론 품격-권위 외면한 左派논리보도

진보좌파의 두 거목 김대중과 노무현이 가도 그 뿌리는 약동한다. 특히 최근 법원쪽에서 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감지된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사장, 인터넷논객미네르바, 광고주불매운동, 강기갑의원의 의사당 공중부양, 전교조사국선언,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제작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무죄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결정적인 것은 MBC방송 스스로가 부분적으로 허위, 과장보도를 인정, 사과까지 했던 문제의 MBC PD수첩제작진에 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보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반응은 입장에 따라 달랐다. 김준규검찰총장, 안상수 한나라당대표 등 정부·여당은 ‘국민불안’ ‘사법정치적 판결’ ‘사법개혁추진’ 등 격양된 반발이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썩갈론’ 등으로 대응했다. 원로작가 이문열은 “사법부도 당파·지역따라 판단 갈리나... 황당하고 우울하다”고 했다. 과장의 진앙지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비난에 “사법부의 독립”으로 응수하고는 침묵했다.

연이은 뒤는 판결은 뭇을 의미하는가. 진보, 좌파를 제외한 국민다수가 우려해온 법원의 ‘진보좌경화’가 결국은 실현된 것 같아 사회불안이 깊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만약 법원의 진보좌경세력이 정치, 노동,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진보 좌파세력과 어떤 형태로든 세력구합이 된다면 힘겹게 지켜가고 있는 현행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조종이 올릴 수 있다. 우리는 가공할 지진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사회안정을 위해 법원의 ‘탈 정치화’는 시급하다. 신문 등 매스컴이 촉매역할을 해야한다. 올바른 역사의식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집념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럴 역량이 있는가. 문제의 MBC PD 광우병특집 무죄판결사건도 1주일이 채 못되어 벌써 뉴스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실 법원의 ‘정치화’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이 상황에 이르렀는지 일반은 잘 모른다. 그동안은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 이번에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소위 조 중 동의 보수 주력지들이 법원의 ‘정치화’현상에 대해 특집을 했으나 한 회에 그쳤고 질·양도 모두 빈약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노출을 기피했겠지만 법원정치화 주역들의 목소리가 없었고 법조 학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종합분석도 없었다. 피상적 관찰, 해설이 전부였다. 연속 시리즈 특집 기획물도 없었다.

불투명한 법원 정치화현황을 극히 개략적으로나마 감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원로 법조인이나 학자들의 인터뷰다.

헌법학의 대가인 김철수 서울대명예교수는 ‘내부로부터 위협받는 사법권

독립’ (문화일보1월 21일)이라는 기고에서 “좌파정권 10년동안 노무현대통령식 헌법무시, 법질서 위반정책이 젊은 판사들에게 극단적인 질서무시 판결을 부추긴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특히 좌파 성향이 강한 뒤는 판사들이 출세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판사들이 도태된 때문이 아니냐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좌파정권 10년동안 운동권 학생들이 판사로 임관, 급속승진 하는 예가 많았다”며 “보수적인 대법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전국의 젊은 판사들이 사임을 요구했고, 대법원장까지 견책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사법행정엔 포폴리즘에 빠졌다”고 했다. 법원 정치오염의 심각성을 압축설명 했다.

현재 사법부는 ‘젊은 뒤는 판사들’의 천하라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52개월동안에 법원장의 재판배당권과 사무분담권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뒤는 판사’의 ‘뒤는 판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치 않게 됐다고 한다. 법원장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근무평정권’도 일선판사들의 반발로 지난해 말부터는 경력5년이하의 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주요사건을 부장판사나 합의부에 위임했던 것이 이제는



이재승

· 본보 편집위원
· 세종연구소 이사

관리체계의 복원 △형사재판부의 단독판사 경력 현행 6년에서 10년이상으로의 제고 △법원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해체 △법조일원화제도 도입(변호사 검사의 판사기용) 등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혁 카드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신문은 사법개혁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한다. 개혁이 적시에 적절하게 이뤄지는 지를 지켜봐야겠다. 법원의 ‘선진좌경화’는 가능한 빨리 뿌리 뽑혀야 하고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중앙일보 (1월22일자 사설)의 제안처럼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산은 상책의 하나다. 그러나 한겨레 등 진보좌파신문들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에 극력 반대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현행 대한민국체제에 끝없이 도전하고 있다. 국민들이

法院의 政治的판결에 환호 同業紙 보도엔 무차별 비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 받는다 한다. 판사 상하간의 평등화가 이뤄진 셈이다. 이런점에서 이틀테면 ‘해방구’처럼 된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대동(大同) 현상은 이 대법원장의 친진보적 리더십에 책임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판사평등화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도구가 ‘사법독립’ 이란다. 이 개념을 실용화하여 보급한 배후가 5공시절의 막강 군부사조직 ‘하나회’에 비유되는 법원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다. 이 조직은 연구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철학을 따르는 주류그룹의 하나다. 공판중심주의는 영미법정처럼 검찰의 기소장보다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무게를 실는다.. “검사의 기소장을 던져 버려라”는 그의 취임일성에 의미가 함축돼 있다. 그러나 이번사태에서 보듯 일반상식과 관행, 전통적인 법관행과의 마찰등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이제 개혁을 단행해야한다. 개혁

이들의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 보수 언론으로서 이를 돕는 것이 그 책무의 하나다. 진보좌파지들은 운동장에서 참관에 만족치 않고 직접 선수로 뛰는 성향이 있다. 언론으로서 정도는 아니다. 객관적인 보도가 어렵다. 요즈음은 보수 매스컴도 이념적 편향보도성향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품격은 지킨다. 물론 경쟁상대가 되지도 않지만 이념다른 동업지에 대해 조폭식 비난은 하지 않는다. 최근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언론의 존립 근거 허무는 친정부신문들’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행태에 대하여’라는 사설로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보수지들의 법원비판에 대해 아전인수적인 좌파논리로 매도했다. 선진언론에서는 보기 어려운 추태다. ‘진보좌파’라도 그 나름의 품위와 권위를 갖추어야겠다. 아니면 ‘신문사’의 간판을 내리고 차라리 ‘당’의 간판으로 바뀌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작금 각신문의 이러한 특징은 이번 서울 중앙지법의 MBC PD 제작진무죄

판결에 대한 사설(1월21일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수지들은 ‘文 판사, 여학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조선),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중앙),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동아), ‘PD수첩 판결-상식 배반한 무죄 시리즈의 종합판’ (문화) 등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의 배치, 법원의 좌파적 정치편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보좌파의 한겨레, 경향, 내일신문 등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 ‘공익강조한 PD 수첩판결’ 이라고 개선장군대하듯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중도지인 한국과 서울은 ‘PD수첩 무죄를 이념으로 보지 말자’, ‘PD수첩 정정하라는 법원, 무죄라는 법원’ 등 탈이념을 권고하며 법원 판결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는 법원의 MBC PD수첩 무죄판결(1월20일)이후 며칠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정치검찰’과 정부를 싸잡아 난타했다. 첫날 사설에서 ‘정치검찰의 억지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이라고 환호를 올리고 다음날에는 1면톱에 ‘정권 뜻대로 청부수사...검찰이 문제다’고 검찰을 질타했고 사설에서는 ‘억지만 부리는 정치검찰, 이대로 뒤야 하나’고 비판수위를 높일만큼 높였다. 그 다음날에는 1면 톱에 ‘검찰 무리한 기소뒤엔 MB 보답인사’, 사설에는 ‘언론의 존립근거 스스로 허무는 친정부신문들’을 실어 정권과 동업 보수언론도 포격했다.

글자 그대로 좌충우돌이었다. 보수지들도 이용훈대법원장의 친진보적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다. 법원의 진보좌파적 ‘뒤는 젊은 판사’들이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전혀 거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文판사 무죄재판의 부당성을 심도있게 지적 반론을 제기한 것 뿐이다. ‘무죄’결론에 짜맞춘 것 같은 ‘임의적인 증언, 증거의 선택’과 또한 이를 겨냥한 ‘언론자유’의 포괄적 확대해석 등의 부적절성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이명박정권을 집권초기 공황상태에 빠뜨렸던 반미반정부 촛불데모에 미친 선동적 영향에 대한 책임이 완전 간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업지의 정반대 논지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주도적 언론으로서의 품위를 지켰다. 진보좌파지들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분명 여론의 한 축을 대변하므로 신문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신문색깔이 다르다고, 논지가 다르다고 하여 동업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선진언론풍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진보지들은 운동장의 참관에 만족치 않고 직접 선수로서 뛰는 성향이 있다. 그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직접뛰고 싶으면 신문사간판을 정당간판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

原電 수출 — ‘과학기술 國格’ 드높였다

과학기자를 하면서 대덕단지의 원자력연구소를 부지런히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다. 처음에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과학 분야에 들어가 과학기술자들을 만나고 어려운 원자력 개발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곳 과학기술자들도 과학전공이 아닌 기사를 친근하게 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좀 특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모르는 분야일수록 아는체 하려하고 서툰 분야일수록 도전의 기쁨을 누리려는 그런 속성 같은 것이 언론인들에게는 있다.

로스앤젤레스지사에 파견되어 그곳 학교에 다니던 중 과학기사가 시리즈를 쓰라는 명령을 받아 “DNA밸리를 가다”라는 제목의 바이오텍 시리즈와 “암이 무너진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쓴 일이 있었다. 둘 다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새로 설립된 바이오텍연구회라는 모임의 초청을 받았는데 “한국일보의 시리즈 기사를 보고 이 학회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DNA밸리를 소개하고 새로 떠오르는 제3의 과학을 소상이 알려준데 대해 무한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암이 무너진다”로는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원자력이 별것이었는가. 공부하고 일하다보면 맥을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원자력 연구소를 취재했다. 마침 당시 소장 한필순 박사는 2중 선배라면서 실력있는 과학자들을 많이 소개해 줬다. 한박사는 공군대령출신이었고 중간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에 편입하여 공부했다. 군대의 선배가 되고 또 대학의 선배가 되는 셈이었다.

3년쯤 과학기자를 하면서 대덕단지를 들락거리다 보니 그런대로 과학기술의 방향을 알만했고 기사를 쓰는 것도 재미가 났다. 과학기술연합회로부터 ‘올해의 과학기자’ 상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토요일도모임인 민족화합기도회에서는 공동기도제목의 하나로 빼놓지 않고 올려지는 것이 있었다. 원자력수출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 민족화합기도회는 1987년 5월 최태섭 김인득 이한빈 서영훈 정근모 다섯분이 발기인이 되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만나 기도하는 모임인데 아침 6시 반에 모여 간단한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공동 기도하면서 벌써 20년 넘게 모여왔다. 마침 창립회원인 정근모 박사가 한전고문으로 들어가 원전수출 일을 돕게 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아침마다 원전수출문제가 공동기도제목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회원들 중 과학기술계 출신들은 미리부터 원전수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만일 일이 성공하면 우리나라에 큰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과학기술자가 아닌 회원들도 원전수출이 반복적으로 기도제목으로 올라와 나중에는 거의 습관적으로 이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정근모 박사는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프랑스 컨소시엄과 한국 컨소시엄만

이 최종경쟁자로 남아 각국 모델의 안전성검사세미나가 열렸던 상황을 말할 때 우리 회원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안전성검사위원회들은 주로 미국원자력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한전 준비팀들이 너무 완벽하게 브리핑을 해 검사위원들을 오히려 놀라게 했다는 것이었다. 프랑스팀

들은 사실 한국준비팀들이 영어도 서툴 것이고 한국형이라는 것이 어설피게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별로 세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팀들은 이미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입찰을 해본 국제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원전수출이 한국과학기술발전의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 한국형 원자로는 원래 미국의 CE(Combustion Engineering)사의 SYSTEM-80이라는 모델을 완벽하게 따오고 그 위에 한국현상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 부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면에서는, 특히 미국의 기준으로서는

原子力 연구소 젊은 연구원들 노력 결실 庚戌국치 100주년에 이룬기적 큰 의미

완벽한 것이었고 그런 기준위에 다시 한국형으로 완벽을 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핵과학자들의 질문을 완벽이상으로 답변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핵과학자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후진국 과학자수준이 아니었고 이미 세계 원자력계에서 알아주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국원자력계는 1980년대의 드라마일 원전사고 이후 원자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로안전이나 효율성 정도가 1980년대 수준 또 그보다 약간 진보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대신 한국 원자력계는 1990년대 원자력 설계자립을 한 이후 꾸준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미국출신 원자력전문가보다 한국의 원전전문가들이 이론이나 실제에서 앞서 있었다.

UAE원전안전성검사위원회의 세미나는 한국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토요일도회원들은 숨을 죽이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신문지상을 통해 흘러나오다가 결국 이명박대통령이 움직였고 한국 측의 승리가 발표되었다.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만한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었다.

時 論



정 일 화

- 본보 편집위원
- 정치학박사
- 한미안보 연구회이사

에 서 있던 8척의 美전함을 파손하고 무려 3백대의 미군기를 폭파시켰다. 이날 현장에서 전사한 병사만 2천명이 넘었다. 미국은 이날을 ‘불명예의 날’로 선포했다.

아마모토 원수가 이끌고 간 진주만공격대가 진주만의 함선 항공기 비행장을 마구 부수고 있는 사이 5개 방향으로 계획된 육전공격대는 동시에 일제히 침략포문을 열고 웨이크 아일랜드를 비롯한 태평양의 섬들, 필리핀군도, 말레이-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를 침략해 들어갔다. 싱가포르를 방어하기 위해 급파된 영국의 자존심 프린스 오브 웨일스전함, 리펠스전함은 하루 아침에

일본해군의 밥이 되어 남태평양에 수장되었다. 일본군은 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이었다.

일본은 나치독일군이 강력한 판저(탱크)부대를 개발하여 보전포 병행공격과 하늘의 급강하폭격기를 함께 운용한 소위 전적전(britzkrieg)전술을 구사하여 유럽을 석권하고 있는 것 처럼, 항공모함과 보전포항공기를 이용한 거대한 해연합전술을 구사하면서 단숨에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점령해 가고 있었다.

1941년 현재 일본은 10척의 항공모함, 18척의 중순양함, 경순양함 18척, 구축함 1백13척, 잠수함 63척, 항공기 약 1천8백대 등 세계최고의 해군력과 해군공격력에 버금가는 강력한 육군력을 갖고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10만도 안 되는 병력에 탱크도 없고 소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을 비교하면 이보다 10년 전의 일본 전쟁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해군이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신형전투기 제로센(零式)전투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전투행동반경인 4백50마일거리와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

이 세계 10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항공모함 1척을 소유하기가 매우 버거운 입장인데 일본제국주의는 1940년대에 이미 10척의 항공모함을 스스로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명치유신이후 매년 100%씩 증가하여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할 때 쯤 이미 동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최강국권에 들어가 있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의미 없이 벌이는 끝없는 정치싸움으로 찌들고 있던 조선은 국제관계의 현실정치에 있어서 일본과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막강한 군사력과 침략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병합을 오직 친일파의 탓으로만 돌린다든지, 나라가 망한 후 일본식민지통치아래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아 그들의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한 역할마저 지워버리려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영원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조선이 일본식민지가 된 것은 첫째 일본의 무력강화와 침략주의 철학 때문이었고 둘째는 일본제국주의에 제동을 걸지 못했거나 이를 동조한 국제정치의 역할이었으며 셋째가 나라를 판 조선의 국내 매국노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이 어마어마한 국력을 미국 공격에 동원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해방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미국만이 약소국을 식민지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철학을 공표하고 있었다.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을 공격한 것, 미국이 종전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의 해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영국-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세력의 벽을 미국공격으로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미국의 약소국 해방철학이 작동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이 협상으로 전쟁종결을 할 수 있었더라면 적어도 한반도는 끝까지 자기 땅으로 붙들려고 했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레이더시스템, 암호기술, 원자탄발명과 같은 거대한 과학기술 앞에 결국 무조건 무릎을 꿇었다.

일본제국주의를 산산이 부순 과학기술이 원자탄이었는데 20세기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게 한 동력도 우라늄의 또 다른 형태의 이용인 원자로에 의한 것이었다. 원자탄은 정제된 우라늄을 임계질량(critical mass)까지 모아 일시에 폭발하게 하는 것이고, 원자로 는 우라늄을 서서히 그리고 소규모로 연속적 폭발을 일으키게 해 핵폭발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게 하는 장치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우라늄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원자탄제조가 우라늄을 서서히 그리고 소규모로 태우는 원자로제조보다 훨씬 쉬운 것에 속한다. 중국은 1960년대 초에 이미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원자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수천 개의 원자탄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보듯, 안전하고 정교한 원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는 뭔가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관구 선생



대한언론인회와 관련하여 있을 수 없는 두 분의 선구자가 있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 언론의 상황과 환경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 분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그 올곧은 정신을 본받아 내일을 열어갈 희망을 찾는다. 아울러 그 맥을 이어가야 할 책무를 느낀다.

대한언론인회의 효시였던 47언론인회를 창설하신 초대회장 이관구(李寬求·1898~1991)선생과 2000년대 들어 언론의 긍지를 지켜주신 이정석(李貞錫·1932~2008) 선생. 이 두 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가는, 자랑스러운 선각자임에 틀림없다.

행운이라고 할까, 필자는 두 분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어 특별한 은혜의 가르침을 받았다. 먼저 성재(誠齋) 이관구 선생은 6·25전란 이전, 가친과 둘도 없는 언론동지로 한 마을(성북동) 이웃에서 오가시면서 자주 대작을 즐기곤 했다. 전란 이후엔 집안 어른처럼 모든 일을 보살펴주며 내 '기자의 삶'을 열어주신 대부(代父)와 같은 은인이기도 하다. 4·19혁명 직후 경향신문 주필로 계실 때였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사상사'(조맹기 교수 저)에 의하면 이관구 선생은 일본 교토대 경제학부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하고 1927년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후 진보적 색채를 띠었던 조선중앙일보에서 주필과 편집국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주의에 경도된 글을 썼다고 되어 있지만 해방 이후엔 자유주의 언론관으로 당파성을

사회의 木鐸, 공론의 面鏡

大韓言論人會 이끈 두 巨木

추모기



이태영

· 본회 부회장
· 전 중앙일보편집색선국장

배격하면서 '사회의 목탁(木鐸), 공론의 면경(面鏡)론'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방 후엔 서울신문 주필과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니 시대의 대표논객으로 장수기록을 세운 셈이다.

이러한 주필경력보다 47언론인회와 신문편집인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언론창달을 위해 항상 선봉에 서서 시대를 이끄셨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기억을 더듬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시대의 운명을 논한 탁론(卓論)사설, 5·16이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시절의 비판적 논조 등 정의감이 넘치는 의연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훗날 80대 고령에도 세종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 홍릉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시던 때, 나는 그 분이 가장 즐겨하시는 인삼주 한 병 들고 우이동 자택으로 새해세배를 가곤 했는데 1977년 내가 보도대원으로 참가한 에베레스트원정 성공소식에 기뻐하며 직접 써 주신 시조액자를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일부를 소개하면-

〈에베레스트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중략) 숨 가빠 살아왔고 허리 잘린 오늘에도 웅감한 이 겨레는 뛰고 있다. (중략) 기어코 영광의 태극기 삼천리에 곧 날리리니〉

이관구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오늘날의 언론이 주목할 부분은 해방 후 혼란상황, 특히 찬반탁 논란 속에서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여론의 중용과 조화에 힘썼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지역과 이념의 양극화현상, 그리고 선동을 주저하지 않는 일부 매체의 편향보도를 보면서, 그 분의 판단기준으로는 이를 어떻게 재단(裁斷)할 것인가 숙제로 남는다. 또한 '태극기 삼천리'의 꿈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 오리무중이니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원망하게 된다.

대한언론인회 전임회장 중의 또 다른 한 분, 이정석 선생은 늦도록 왕성한 활동을 하다 어느 날 홀연히 하늘나라로 떠나셨기에 허무감을 떨치기 어렵다. 2년 전 희수(喜壽)를 맞기 바로 전이었다.

조선일보 공채1기로 출발한 그의 언론 한 평생은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동아방송 뉴스부장, KBS워싱턴특파원을 거쳐 보도국장으로 명성을 떨친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분이 KBS시청자위원장일 때 미국과 영국의 선진적인 방송제작 사례를 들어가며 애정어린 충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시청자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명 받은바 있다. 특히 스포츠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그 분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1962년 자

이정석 선생



카르타 아시안게임 때의 감각적이며 현장감 넘치는 보도(조선일보), 특히 당시 신비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스키 카르노 대통령인터뷰였다.

이 밖에 같은 해 겨울, 대관령에서의 전국동계스키대회를 취재하던 서울신문 경비행기(L-5)실종, 추락사고가 터지자 사고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기사를 재빠르게 송고하는 재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탁월한 기자적 센스를 타고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당시 '울창이'로 동행했던 나는 '취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처음 깨달았던 셈이다.

대한언론인회장을 연임하면서 그 분이 이룬 일이라면 시시비비의 비판정신, 그리고 어떠한 정치, 사회적 빅 이슈를 만날 때마다 권위 있는 대표적 언론단체로서 성명을 발표하곤 했던 점이다. 특히 신문 방송을 아우르며 원로그룹의 절대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던 그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이 돋보였다.

이관구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33년, 그리고 이정석 선생의 영면은 2년 전의 일이다. 비록 그 발자국은 세월 속에 묻혀버릴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곧은 정신은 우리에게 살아있다. 그리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언론은 죽지 않는다'는 확신과 '시류에 영합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시대를 앞서간 두 분 영혼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하고 싶다..

8면에서 이어집니다.

원자탄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원자탄보다 상위기술인 원자료를 제조할 수 있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UAE원전수출국이 되기까지에 이르렀는가. 이 문제는 후일 자료를 갖고 세밀한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과학기술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굵직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었다.

이승만대통령은 일찌감치 원자력연구소를 만들어 이 방면의 학자를 기르기 시작했으며 젊은 과학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 원자력을 배워오도록 주선했고, 박정희대통령은 월남광산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원자탄개발을 시도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계의 확대를 꾀했다. 그러나 원자로는 전두환대통령시절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전대통령은 어느날 대덕 원자력연구소에 내려와 정부각료와 연구소장을 모은 가운데 "한 필순 소장이 책임지고 원자력을 개발하시오. 앞으로 한소장의 말을 대통령인

내 말과 같은 뜻으로 알고 정부와 여러 연구소는 협력하기 바랍니다"라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 기점이 되어 원자력개발을 위한 총력전체제에 들어갔다. 이때쯤 대덕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개발을 위한 전투현장이 되고 있었다.

1986년 12월 원자력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병령박사를 비롯한 70여명의 젊은 핵 관계 박사들이 CE사로 연수겸 원자로공동설계참여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발대식을 했다. 이병령 팀은 삶 전체를 걸고 원자로기술개발에 매달렸다. 한국형원자로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병령팀은 1987년 우리나라 원전의 11번째와 12번째인 영광 3,4호기 설계의 50%를 맡아 미국과 함께 설계를 해냈고 이어 우리나라 원전 13, 14호기인 울진 3,4호기부터 대한민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책임아래 한국형원자료를 짓게 되었다. 한국의 원자로 설계기술은 뒤에 한전전력기술(KOPEC, 사장 정근모)이 신설되어 여기서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세계적 원전설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잡았다.

1994년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 받는 대신 원자료를 지어주는 KEDO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제 원자료를 북한에 건설해 주기로 내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국형원자료가 인정되어 북한에 한국형원자료를 건설하게 되었다. 한국의 원전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한국은 1971년 고리1호기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20기가 가동 중에 있고 새로 6기가 건설 중에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전력소비도 크게 늘어 원자로크기를 1천메가와트 짜리에서 1천4백메가와트 짜리로 늘려 설계했다.

APR(Advanced Power Reactor)1400이라는 이름의 새 원자로가 현재 신고리 3,4호기로 건설 중에 있다. 한국원전은 지난 40년간 큰 사고는 물론 작은 사고도 경미한 것 외에는 없어 세계최고수준의 안전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건설단계 역시 프랑스제보다 적어도 20%이상 낮

게 건설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국의 폐기물처리기술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 중저준위폐기물의 부피를 기존의 5분의 1정도로 줄이고 있고, 고준위폐기물을 플루토늄 추출없이 안전하게 처리하는 파이로처리법을 개발하여 국제원자력위원회와 실용화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은 방사능사고의 위험과 원자탄기술전위라는 위험성 때문에 상당한 국제적 반대에 부딪쳐 그동안 개발이 주춤해 졌으나 이번 한국원전의 UAE수출을 계기로 새롭게 안전하고 정결한 에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인도, 미국에서 이미 한국원자로의 수입을 타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위대한 과학기술국가로서의 국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경술국치(한일병합) 1백주년에 이뤄진 원전수출의 의미는 4백억달러의 달러수입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이 아닐 수 없다.

한국최초 만화박물관 만드는 ‘庶民의

본명보다도 캐릭터인 ‘고바우’로 더 유명한 배우 김성환 화백은 1932년 개성에서 출생했다. 내년엔 팔순이다. 고바우가 세상에 나온 건 1950년, 올해로 만60년이 됐다. 태어 날 때부터 영감 모습이었지만 어느 듯 환갑을 맞이하게 됐다.

요즘 그는 오는 가을 개인전 준비로 바쁘다.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생애 12번째 개인전을 연다.

“당초 내년에 팔순 기념 개인전을 가질 계획이라 수년전부터 작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올해 2010년이 숫자 상으로 2011년보다 여러 가지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당겨 여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전 명칭은 ‘그 시절 그 모습’.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예전의 우리 의식주 생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를테면 초가 마루에서 아낙네가 다듬이질을 하는 것 같은 모습 등이다. 2호 크기에서 40호에 이르는 작품 7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은 이미 모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팸플릿과 그림 액자를 만드는 일 등이 남았습니다.”

그는 경북중학교 5학년(지금의 고교2학년) 때인 1949년 17살의 나이로 연합신문(환도 후의 연합신문과는 다름)에 '멍텅구리'란 제목의 연재만화로 데뷔했다. 15회나 연재, 천재 소년 만화가가 나왔다고 주위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후 주간 만화뉴스사, 월간 화랑잡지에서 근무하다가 6·25를 맞았다.

“90여일 동안 적지하 서울에 숨어살면서 만화 주인공(캐릭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바우입니다.”

고바우는 1950년 12월 하순 서울에서 창간된 주간 만화신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만화신보에 선을 보인 이후 1·4후퇴 뒤에도 때때로 만화신문과 육군화보, 월간 신태양, 희망지 등에 고바우를 그렸습니다. 환도 후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만화주보에 연재하다가 신문으로 자리를 옮겼죠.”

1955년 2월1일 동아일보에 4컷 만화로 연재를 시작, 고바우는 신문만화 시대를 열며 맹활약을 벌이게 된다. 자유당 독재가 본격화하던 시기에 정치적 독재와 사회적 불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고발 풍자하고 꾸짖는가 하면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면모를 보여 온 국민의 마스코트가 됐다. 반독재 민주화에 앞장서 정론 언론을 펼친 동아일보와 그 연재만화 고바우는 동반 인기절정이었다. 고바우는 책과 영화로, 노래와 시로 변신하며 국민에 회자했다.

대표적인 걸작의 하나는 1958년 1월 23일자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똥치는 귀하신 몸' 만화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짜 양아들 사건이 터져 '귀하신 몸'이란 말이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던 때여서 이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9>

회우초대석

金星煥

동아일보 국
조선일보 이
문화일보 상
(사) 한국만

인터뷰 글·사진 / 최희조(본보 편집위원·중부대)

력에 팔고 돈과 바꾸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데 氏(씨)와 고바우는 20년 동안 시종 여일 민족지에서 독야청청하다. 요즘



만화 고바우 탄생 60년을 회고하는 김성환 회우.



1956년 1월 17일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인), 김팔봉(소설가), 박영근(소설가), 김성환(시인), 12인중 생존자는 김성환

八旬앞두고 생애 12번째 개인전 ‘그시절 그모습’을 열었다. 천부적 소질-놀라운 예술혼으로 세계적 작가로

풍자 만화는 바로 초철살인이었다. 이 만화 때문에 서울시경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는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고바우의 기백은 꺾이기는커녕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꽃꽂해져 비판과 풍자의 강도를 높여갔다.

〈고바우는 /1950년대 이래 /우리과 더
불어 살아왔다.

그 뚱뚱한 머리 / 굵은 안테나 머리카락 한 올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 왔다. (종락) / 저 자유당 시절 / 고바우는 이따금 탄압을 받아야 했다. / 우리는 움츠려들고 / 고바우는 어이없이 / 벌금까지 물을 때가 있었다. / 저 유신 시절 / 며칠동안 아무도 모르게 / 고바우는 끌려갔다. / 우리는 그가 어디 있는가 모른채 / 그의 빈 칸 신문을 넘겨야 했다. / 아니 저 6공 시절 / 아예 멀리 떠나라 / 멀리 이민이라

도 가라는 압박에 /고바우는 으시시 시
달리기도 했다. (후략) >

고은(高銀) 시인의 ‘고바우 김성환’이란 제목의 시 일부 내용이다.

〈(전략) 석간을 펼쳐들면 / 손주놈 고
바우를 묻는다./허 끝에 진득이는 /이 풍
자 감 칠 맛을 (후략)〉

고 이영도(1916~75) 시조시인의 ‘흐름 속에서’란 제목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다음은 1973년 11월21일 조선일보에
선우 휘(1922~86)가 쓴 '고바우전집'
서평의 일부 내용이다.

〈고바우만화가 갖는 풍부한 유머, 신랄한 풍자 통쾌한 비판...진짜 인간은 인기를 누리는 걸치레나 제스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세계에나 있듯이 재간을 권

이 무비관의 언론상태에서 고바우는 그 신비스러운 재간과 슬기로 여전히 생기 발랄하다. 나는 매일 같이 고바우를 보면서 남몰래 웃는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위안의 웃음이요, 자책의 비웃음이며 더러는 저항의 웃음이기도 하다. 고바우 만세

고바우는 박정희시대에도 인혁당사건, 재벌공화국 풍자 만화 등으로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했다.

“1980년 신군부의 압력으로 동아일보를 떠났다가 얼마후 조선일보로 옮겨 다시 고바우를 연재했습니다. 1986년엔 ‘스타일 구건 레이건’ 만화로 당시 모 장관에게 불려가 아예 이민을 가라는 억지 소리를 듣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고바우에 얹힌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예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의 동반자 고바우'

동아일보 국장대우
조선일보 이사대우
문화일보 상무대우
(사) 한국만화가협회고문

편집위원 · 중부대초빙교수)

고바우 반세기전이 서울세종문화회관에
서 개막되던 2000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의 이규태 코너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전략) 신문 4컷 만화의 황금시대를 이
루고 50년이던 일일연재 최장 세계 기록을
깼 것이 고바우 영감이다. 고바우는 돈도
권력도 없는 그 피해자다. 그래서 항상 서
민편에서 공감하고 친화 동조하며 울고 웃
기를 반백년동안 더불어 해왔다. (중략)왕
성한 반골정신이 스며 나오는 서민의 정의
감, 한국정변의 민중에너지-고바우영감의
저항, 갖은 수난에도 참아낸 악정과의 싸
움, 고바우는 한국인의 소리 없는 소리를

서초구반포동 본관 7층 고전운영실에 '고
바우 김성환선생 작품 상설 전시실'을 마
련, 김화백의 일대기 뿐만 아니라 일부 만
화 및 작품을 전시해 오고 있다.

김 화백이 만들어낸 캐릭터는 고바우 말
고도 많다. 멧덩구리, 도토리 용사, 꺼꾸리
군 장다리군, 고사리군, 박참봉, 소켓군
등이 그의 손에 의해 태어나 각계 각층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국내 최초의 만화박물관 고바우의
집 건립에도 몇 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화백은 만화계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장 작품과 만화 관련 자료를 사회에 환
원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바 있다. 이들
작품 중에는 그가 오래 전부터 보관 또는
수집해 온 역사의 중요한 사료가 될 고바
우 원화 5천점을 포함한 각종 만화와 유화,
동양화, 병풍, 도자기, 미공개 작품 등 만



1904.2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심사위원 일동. 왼쪽부터 이상노(시인), 권오철(동아편집부장), 백광해(단상단하 집필), 김동명(소설가), 박영준(소설가), 강소천(동화작가), 김성환(고바우), 신동현(만화가), 고재욱(주필), 마해송(동화작가), 주요한(생존자는 김성환, 신동현씨 2인이고 나머지 인사는 모두 작고했다).

‘고모습’ 준비 작가로 우뚝

대변해 왔다.》

김성환 화백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
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명인사다.
1977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폴 드레지
교수는 ‘고바우의 언어’라는 논문으로 하
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일본 교토 세이카대학에서 재일동포 여성
정인경 씨가 ‘고바우 작가론’으로 박사학
위를 받았다. 특히 일본에서의 고바우에대
한 관심은 한국에서보다도 앞서면 앞섰지
않지 않는다. 2003년 우에무라 다카시씨
와 공동 저술한 ‘만화 한국 현대사-고바우
아저씨 50년’이란 포켓북은 일본 사회의
높은 평가를 말해 준다. 이밖에도 전시회와
여러 작품집이 일본에서 열렸거나 발간됐
다.

국내에선 국립중앙도서관이 1996년 서울

여 점을 비롯, 국내외 작가들의 희귀한 원
화와 각종 자료가 포함돼 있다. 고바우를
사랑하는 정계와 학계 만화계 인사 1백20
여명은 고바우 만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고바우의 집 건립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가 계양구와 함께 이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 계양구 방축동에 부지를 선정하
는 등 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부
국비 지원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추진에 속
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바우 만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고바우의 작가 김성환 화백은 한국 현대
만화의 개척자이다. 60여년간 천부적인 소
질에 놀라운 예술혼을 쏟아 많은 주옥 같
은 작품을 발표했다. 한국 만화문화의 초석
과 발전을 이룬 세계적 만화가”라고 평가
했다. 따라서 “한국 최초로 건립되는 유명
만화가의 만화 박물관 전시물을 통해 만화
계는 작가의 장인정신을 배우게 되고 국민
은 세계적 예술가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문화민족의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바우의 집을 건립한 도시는 문화명소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나타
냈다.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⑧



金泰運 회우

위스키의 매력 (中)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다. 위스키투
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골프를 서둘렀다. 세인트 앤드루즈
월드코스는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골프의 발상지다.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
버러에 도착, 한식당에 자리를 예약
했다. 저녁시간, 메뉴와 함께 본바닥
스코틀랜드에 왔으니 ‘스카치 위스키
17년짜리 한병’도 주문했다.

골프가 끝나고 식당에 돌아오니 다
른것은 주문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
으나 술이 없었다.그땅의 지주(地
酒)인 스카치 위스키가...

식당주인은 손바닥을 비비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17년짜리는 고사하고 12년짜리도 없
고.... 에딘버러 시내를 살살이 뒤졌
으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어렵사리 내놓
는다는 것이 ‘조니워커 레드’ 반병짜
리였다.

여이가 없어진 것은 오히려 우리쪽
이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우리들이
한국에서 흔히 접하던 ‘스카치 위스
키’는 찾을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들은 비싸고 고급인 스카치는 마
시지를 못한다.

애써 만들어서 외국시장에 내다 팔
뿐이다. ‘스카치 위스키 30년’ 짜리를
어디 구경이나 했겠는가.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합병
(1707년)한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위
스키 밀조업자와 세리(稅吏)간의 쫓
고 쫓기는 숨바꼭질은 끊어질줄 몰랐다.

위스키의 고난시절이다. 100년간의
싸움(밀조자-세리) 끝에 잉글랜드 정
부는 결국 정책을 바꾼다. 술에 대한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정당한
세금을 내는 면허제(免許制)를 시행
하게 된 것이다.

1824년에 정부로부터 위스키제조 1
호가 발급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까
다로운 조건이 첨부된다.

1. 위스키의 원료는 반드시 곡물
(穀物)이어야 한다.
2. 효모(酵母)로 발효시킨 것이라
야 할 것.

김 화백은 지난 2001년 고바우 만화
상을 제정, 매년 국내 만화가 가운데 1
명을 뽑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10
번째를 맞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
서울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 비용은
전액 사재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빌라에서 부
인(74)과 함께 검소하게 살고 있다.☞

3. 95도 미만(94·8도 이하)으로 증
류시켜야 할것.

4. 나무로 만든 통에 술을 담가 최
소 3년간은 숙성시킨 것이라야 할것.
여기에 내려진 정의에 합당한 것이
라야 하고 그 제조방법도 몰트, 그레
인, 블렌디드의 3종류로 못박고 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에는 개성적
인 3가지 타입이 존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 몰트 위스키

대맥맥아(大麥麥芽)만을 원료로 피
트(土炭)연기를 살짝 씌운것. 오크통
에서 오래 숙성시켜야 한다.

○ 그레인 위스키

옥수수 약 8할, 대맥 약 2할을 섞
어 단식 증류기로 증류한것. 소프트
하고 마일드한 것이 특징이다.

○ 블렌디드 위스키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
렌딩한것. 몰트의 독특한 개성미와
그레인의 부드러운 맛을 가미, 마시
기 편하게 만든것이 그 특징이다.

1853년 한 젊은 술 전문가가 몰트
와 그레인을 블렌딩, 향기높고 부드
러운 스카치를 이 세상에 내보낸 것
이다.

여기에는 저 유명한 술 재판(裁判)
이야기가 곁들여 진다.

몰트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그레인
위스키가 출현하자 위협을 받게 된
다. 원가(原價)가 싸고 마시기 부드
러운 그레인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몰트업자들은 그레인 위스키는 위
스키반열에 올려 놓을 수 없다 며 소
송을 걸고 나온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위스키재판’이다.
이 와중에 1853년 앤드루라는 젊은
친구가 몰트와 그레인을 합성, 블랜
디드를 만들면서, 대세는 역전, 향기
좋고 마일드한 ‘블렌디드 위스키
(Blended whisky)’가 위스키의 세계를
평정해 버렸다.

휘몰아치는 폭풍, 스코틀랜드의 거
센 바람을 이기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태어난 스카치 위
스키는 그래서 세계주당들의 절대적
인 애호를 받고 자라는지 모른다.☞

▶ 바로 잡습니다

본보 1월호 13면 회우초대석 ‘찬란한
불꽃 실버파티팅’李學紀회우 기사중
맨 끝 단락 ‘나그네 인생’ 제하 ‘2005
년엔 장남이 지병으로 그의 곁을 떠
나...’ 중 ‘장남’을 ‘차남’으로, ‘차남
薰柱씨와 딸...’을 ‘장남 薰柱씨와
딸...’로 바로 잡습니다.

MBC 경제살리기 캠페인

사람이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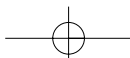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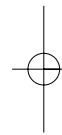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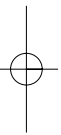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MBC



회우들이 펴낸 新刊

한국최초 PD가 쓴 放送史 생생한 증언

본회 명예회원 최창봉(崔彰鳳) 전 MBC사장이 50년 방송생활과 문화예술관련 참여를 기록한 회고록을 출간했다.(신국판 변형 양장 612쪽·동아일보사刊·25,000원)

1956년 KORCAD-TV(종로TV)를 개국, 우리나라 제 1호 PD로 출발하여 KBS-TV, MBC-R, 동아방송을 잇따라 개국 발전시켰다. 영원한 PD 최창봉의 삶은 곧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이고, 그의 회고록 '방송과 나'는 한국 방송 50년 실록이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실적들은 이제 결실단계로 축적되어서 튼튼한 탑을 쌓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연극연출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일제말에 고향의 주군 청성진에서 청년들과 연극 '산하유정' '화랑관정'을 공연하고 광복 후에는 해방기념으로 '등잔불'(박영호작)을 연출 주연으로 공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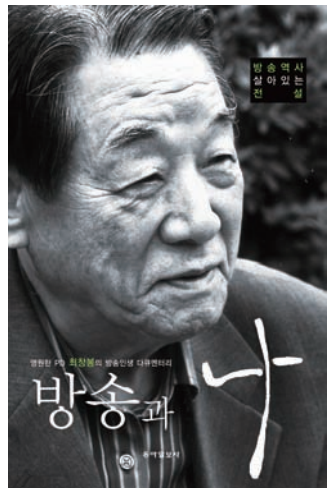
고려대 시절에는 대학극 경연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았고 극단 '제작극회'(制作劇會)를 동지들과 함께 결성하여 '성난 얼굴로 돌아다보라'를 한국 초연으로 연출하면서 신예연출가로 연극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방송과 맺은 50년 인생은 시대와 국가의 부름(징발)이었다.

'방송과 나'에는 방송과 문화예술, 그리고 6·25 한국전쟁의 체험이 담겨 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회고록과는 차별되는 직접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6·25 전쟁때 공산치하의 서울에서 9·28수복을 맞는 전야까지 긴장감 연속의 순간순간들, 용문산전투, 가평전투에서 포위됐다가 낙오병들을 이끌고 중공군 36명을 포로로 잡는 기적같은

최창봉원로회우 자서전 '방송과 나'



안 평 선

· 본회 이사
·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방송과 나' 출판기념회에서 장한성 한국방송인회 회장,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윤세영 SBS회장, 최창봉 이사장,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장관,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조동화 월간 춤 발행인(왼쪽부터)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실전담은 60년 전 당시를 생생하게 떠올려 준다.

세계에서 열다섯번째 텔레비전 KORCAD-TV의 개국과 편성제작, 최

초의 드라마 '사형수' 연출, 원인모를 화재로 방송중단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 TV 창생기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MBC-R 개국준비중 KBS-TV 개국 책임자로 발탁된 것은 비록 강제성 차출이지만 당시의 TV개국을 위해서는 그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방송경력중에서 가장 괄목할 업적은 동아방송(DBS)의 개국과 편성제작, 그리고 PD시스템과 인사운용이다.

프로듀서는 자율적 기획과 제작으로, 기자는 24시간 현장취재, 상시 뉴스로 방송하고 음악과 교양의 다양성과 품격을 높이고 문화적 역사성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관영 KBS를 공사로 창립하여 공정한 방송본연의 기간 방송으로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문화방송 4년은 민주화 파동과 노사의 혼란속에서 편성권과 인사권의 정위치를 흔들림 없이 지켰다.

문예진흥원 시절, 서울대 문리대 자리가 고급주택단지로 낙착된 것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수하여 문예진흥원이 자리를 잡고 미술관과 연극회관을 신축하여 오늘날까지도 무대예술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한민국 연극제 무용제 음악제도 당시에 창설하여 중흥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출판기념회에는 방송과 신문의 전현직 언론인들과 연극계, 무용계, 음악계 등 문화예술인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회고록 출간을 축하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본문]

화제의 책

'연수영-불멸의 전설' 황원갑회우 역사소설 펴내



안시성주 양반춘과 더불어 제1차 고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 수군원수 연수영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1,400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랫동안 잊혀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장수 연수영(淵秀英)과 고당전쟁(高唐戰爭) 당시 고구려 해군의 눈부신 활약상이 소설로 부활했다.

중견소설가이며 역사연구가인 황원갑(黃源甲) 회우가 출간한 '연수영-불멸의 전설'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인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연수영이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실존인물을 발굴한 정통 역사소설이다.

연수영은 고구려 말기의 집권자인 대막리지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이복 누이동생이다. 연개소문이 군사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울

때 자신이 양성한 낭자군(娘子軍)을 이끌고 조력했다. 그러나 혁명 직후 당의 침공에 대비, 수군을 양성하고 발해만과 요동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청하여 요동반도 남해안 수군기지 석성의 성주로 나간다.

이세민(李世民·당 태종)의 즉위 이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문이 짙어지자 연수영은 지난번에 수나라의 침략 때와 마찬가지로 당군이 바다로도 쳐들어올 것을 예측, 수군의 양성과 함대 증강에 힘을 기울인다. 645년(보장왕 4년), 마침내 전쟁이 터지자 연수영은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출전, 이때부터 장량(張亮)이 거느린 압도적으로 우세한 당 수군함대와 해전을 벌여 연전연승의 개가를 올린다.

그러나 연수영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 작가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통해 읽

는 재미와 함께 우리 역사, 특히 중국이 동북공정 등을 통해 왜곡하고 날조하고 탈취하려는 한국고대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1,400년 간이나 잊혀진 고구려의 여장군 연수영을 발굴, 소설화함으로써 고구려사, 나아가 우리 고대사를 지키려는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져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긴박하게 돌아가던 고구려 말기의 격동적인 시대상과 고당전쟁이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던 연개소문과 연수영 남매, 고구려와 당나라 수군함대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하고 웅장한 스케일의 해전, 당 태종 이세민과 신라의 김춘추, 신라의 김유신과 백제의 계백 장군 등 당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던 영웅호걸들의 비장한 대결을 대하의 흐름처럼 유장하게 엮어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를 읽는 듯한 감동을 안겨준다. [본문]

謹賀新年



아세아시멘트가 한결같이 사랑받는 이유

첨단생산설비를 통한 각 부분의 균일한 품질, 시공 후 품질유지에서 하자보수까지 완벽한 서비스
자동화 기계장비에 의한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절감, 분진이나 폐기발생 감소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산업개발, 대련아세아

제지: 아세아제지, 아세아 페이퍼텍,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팩

금융: 우신개발금융

레저: 경주월드

교육: 학교법인문경학원



아세아시멘트

www.asiacement.co.kr

제품문의 02)527-6711~5 / 소비자 상담실 080-960-2000

설 나라마다 풍속 달라도 소망은 같다

꼭죽소리 요란한 중국의 春節

나라마다 설 세시풍속은 달라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경건하게 한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다.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때 서력 기원을 채택하여 양력 1월 1일은 원단(元旦), 음력 정월 초하루는 춘절(春節)로 굳어졌다.

중국의 춘절 세시풍속은 우리의 설 풍습과 가장 비슷하다. 선달 그믐날 밤 수세(守歲)라 하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고 전통 오락인 마작을 즐기며 밤을 샌다. '그믐날 잠자면 눈썹이 센다'는 우리의 풍속과 닮았다. 중국이 때문에 '복(福)'자를 거꾸로 붙이는 풍습과 우리가 복조리를 방이나 부엌구석에 다는 것도 형식만 다를 뿐 복을 기원하는 의미는 같다.

중국의 춘절은 꼭죽으로 시작하여 꼭죽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꼭죽을 터뜨려 요란한 폭음과 자욱한 화약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꼭죽은 액운과 악귀를 쫓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소망하는 중국인들의 고유한 전통이다. '신의 날(接神日·음력 1월 4일)', '재물신의 생일(음력 1월 5일)' 등 상징적인 날이 이어지고 사람마다 사주가 달라 액을 쫓는 시간이 다르다며 대보름인 원소절(元宵節)까지 시도 때도 없이 터트려 인명피해와 화재가 빈발할 정도로 극성스럽다.

설날이 제각각인 나라는 인구 11억 명의 인도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등 종교도 많고 그들이 믿는 신도 많으며 지방과 종교에 따라 역법이 달라 그 수가 무려 30가지나 되는 다양성의 나라다. 인도 최남단에 위치한 타밀나두주 설날은 보통 4월 13일이나 14일이다. 새 해 첫날 망고, 흑설탕, 님(Neem)나무 꽃, 칠리, 소금 등으로 만든 '망가 파차디'라는 음식을 먹는다. 달고, 시고, 쓰고, 짭맛이 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1년 동안 벌어질 즐겁고, 슬프고, 힘든 일들을 미리 체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 러시아정교의 크리스마스는 1월이고, 러시아 설날도 그레고리력 보다 14일 늦다. 새해를 알리는 붉은광장 시계탑의 열 두 번 째 종소리가 울리는 시각,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태워 삼페인과 함께 꿈을 마시는 풍속은 멋이 넘친다.

홍콩 구정축제는 지구촌축제

설 축제가 화려하고 다채롭기로는 홍

콩 구정 축제다. 구정이 다가오면 '밤의 요정' 홍콩의 거리는 짙은 화장을 한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오얏나무와 복숭아꽃, 수선화가 장식되고 축제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른다. 빅토리아 항 양편의 빌딩들은 축하메시지를 담은 형형색색의



이 규 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홍콩 구정축제의 하이라이트 야간 거리퍼레이드. 용 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빅토리아 항구에서 펼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홍콩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네온사인에 불을 밝힌다.

홍콩섬, 코즈웨이 베이 빅토리아 공원 구룡반도 몽콕의 파후이공원 꽃시장은 며칠 전부터 붐비고 싱싱한 꽃과 향기가 눈과 코를 즐겁게 해준다. 잎이 달린 오렌지색의 금굴은 축복 받은 영원한 결혼생활, 분홍색 복숭아꽃은 불타는 로맨스, 수선화는 성공을 의미한다. 자신의 소망을 담은 꽃과 선물할 꽃을 찾아 이리저리 누빈다. 꽃뿐만 아니라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바람개비, 부채, 인형 등 수많은 설 상품들이 준비하다. 꽃을 고르는 사람들의 환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구정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야간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화려하게 장식한 대규모 마차와 관악행진, 세계 각국의 무예와 춤, 중국전통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거리퍼레이드는 홍콩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는 고유행사를 펼치며 설 축제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을 뿐, 마을단위 행사는 많이 사라졌다. 지난해는 경남 창원 화왕산에서 역새 태우기 행사를 하다 사망자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갈수록 퇴색하는 설 미풍양속

우리나라는 1891년 태양력을 채택하여 양력설과 음력설이 병존해왔다. '이중과세'라는 명분으로 음력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구정'과 '민속의 날'로 불리는 등 우여곡절 끝에 민족고유명절로 제자리를 찾았다.

예전에 설은 가난했음장정 마음은 넉넉했고 정이 넘쳤다. 식혜와 조청, 한과 등 대부분 설음식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왔다. 입안에 감돌던 달착지근한 식혜의 향기와 말랑말랑한 떡가래를 가마솥에 고아낸 조청에 찍어 먹던 달고 쫄깃쫄깃한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는 'e-편한 설'이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이 설 풍속도를 바꿔 놓았다. 차례상 인터넷 주문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맛별이로 바쁘거나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음식준비를 시키는 것도 눈치 보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려는 며느리도 드물다. 신세대들이 차리는 차례상은 전례의 전통보다 아이들 입맛 위주로 바뀌었다. 쇠고기 산적 대신 떡갈비를 만들고 숙주나물은 샐러드로 변신한다. 다문화가정이 늘다보니 필리핀 잡채에 티베트 만두 등 다국적 퓨전 음식이 차례상에 오르는 세상이 됐다.

한복 입는 법이나 차례상 차리는 법, 세배하는 법이 헛갈릴 땐 인터넷 UCC 검색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지방(紙榜)을 쓰는 대신 사진을 놓는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동영상 메일 서비스나 화상통화로 새해인사를 대신한다.

부모님께서는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 됐고 아이들의 세뱃돈은 사이버머니로 바뀌었다. 차례상을 물린 뒤 주고받는 덕담도 여간 조심스러워 진

게 아니다. "올해는 결혼해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하는 덕담이 당사자에게겐 스트레스다. 가족과 오순도순 웃놀이를 하기보다 어른들은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PC방으로 달려가 게임에 빠져든다.

설날이면 흠어졌던 가족이 만나 혈육의 정을 확인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세배로 어른을 섬기며 덕담을 주고받던 고유의 미풍양속이 갈수록 퇴색되어 안타깝다. [4]

지구촌의 축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결치는 커다란 용은 새해 새 꿈을 기원하며 용틀임한다. 용과 사자의 탈을 쓰고 일사불란하게 리듬을 타며 거리를 누빈다. 구정 다음날 저녁 빅토리아 항구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가 절정을 이루면 "쿵 헤이 팻 초이(kung hei fat choi)"를 연호하며 열광한다.

우리나라는 세시풍속의 절반 가까운 행사가 설과 대보름 사이에 펼쳐졌다. 줄다리기, 다리 밟기, 고싸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집단적인 행사가 많았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에 맞

역사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나라를 난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멸망에 빠뜨리기도 했던 수많은 경우를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다. 백제의 26대 임금 성왕(聖王)이 관산성전투에서 패배하여 자신을 포함한 전군이 전멸당한 사실도 그렇다.

성왕은 무녕왕(武寧王)의 아들로써 523년에 즉위했다. ‘삼국사기’는 성왕이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단성이 있었다”고 했지만, 관산성전투에서 패소한 정황을 두고 보면 그는 용병술이 모자라고 치밀함도 부족한 인물이었다.

성왕이 즉위한 무렵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 관계는 서로 치고받는 험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신라는 가야와 손잡고 동쪽에서 공격하고, 고구려도 계속해서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 백제가 가장 불리한 형편이었다. 이에 성왕은 신라와 화친을 모색했다. 그리고 538년에는 도읍을 웅진(公州)에서 사비(부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고 하는 등 개혁을 통한 국력 회복을 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548년에 고구려군이 남침, 백제의 한강 이북 방어요새인 독산성을 포위했다. 성왕은 급히 신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라는 군사를 보내 이를 구해주었다. 3년 뒤인 551년에 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일으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했다. 그 보복전에서 백제는 고구려 남쪽의 6개 군을, 신라는 10개 군을 점령했다. 백제가 차지한 6개 군은 한강 하

류 서울과 경기도 일대였고, 신라가 차지한 10개 군은 남한강 상류 강원도와 충북 일대였다.

그러나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신라가 동맹을 배반했던 것이다. 신라군 총사령관 김거칠부(金居柒夫)는 내친 김에 백제가 천신만고 끝에 70년 만에 되찾은 옛 서울 한성지역의 6개 군마저 기습하여 차지해버렸다.

분노한 성왕은 절치부심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한 성왕은 한성 탈환이라는 눈앞의 성취에만 만족하여 신라의 음모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아무 대비책도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의 군사행동을 비겁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전쟁이란 본래 칼로 하는 정치가 아닌가. 동맹관계란 영원히 가지 않는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고대나 현대나 변함없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실상이다. 내가 빼앗지 못하

백제의 南遷과 성왕의 敗死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면 적국에게 빼앗기고, 승리하지 못하면 패망하는 것이 전쟁의 속성이다. 오늘날에도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든 기업경영의 총수든, 가정의家長이든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면 국가와 회사와 집안에 손해나 끼치고, 그것도 모자라면 망하게 만들지 않는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던 성왕은 재위 32년(554)에 마침내 복수의 칼을 빼들며 대군을 이끌고 오늘의 관산성(충북 옥천)을 공격했다. 성왕이 연합군인 대가야와 왜의 군사까지 거느리고 맹공을 퍼붓자 신라군은 백제군의 노도 같은 기세를 당할 수 없어 서전에서 패퇴했다. 그러자 신라의 신주(한산주) 군주(軍主) 김무력(金武力)이 군사를 이끌고 관산성을 구원하러 달려왔다. 김무력은 법흥왕(法興王) 때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의 왕자 출신으로 김유신(金庾信)의 조부이다.

그 소식을 들은 성왕은 뒤에 위덕왕(威德王)이 되는 태자 부여창(扶餘昌)

이 걱정되어 밤중에 보병과 기병 50명만 거느리고 달려갔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첩보를 입수한 신라 삼년산군의 고간(高干, 하급 무관) 도도(都刀)가 구천(狗川)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전광석화처럼 기습공격을 가했다. 결국 이 관산성전투에서 백제군은 국왕 겸 총사령관인 성왕 자신은 물론, 장관급인 좌평 4명, 장병 2만 9천 600명이 전멸당하고 말았다고 사서는 전한다.

국왕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전멸했으므로 백제는 개로왕(蓋鹵王)이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에게 잡혀죽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또다시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백제가 서울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다시 부여로 남천(南遷)한 끝에 멸망당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백제는 한반도의 중심부로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강 하류를 고구려와 신라에게 차례로 빼앗기고 남천을 거듭한 끝에 망했던 것이다.

지금은 삼국시대와는 형편이 여러 모로 다르지만 우리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호전적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다. 명칭이야 수도이전이든 수도분할이든 한강 이남으로의 남천은 백제 망국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그런 결정이 어느 정파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왔다면 그보다 위험천만의 발상도 없다. 총남이 아니라 차라리 과주나 포천 또는 철원으로 북천하는 것이 장차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오히려 적극적이고 진취적 발상이 아닐까. [\[필자주\]](#)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신아일보 폐간과 東京생활

일본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구하기가 힘들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세금에 달세가 따랐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사절이었다.

통째로 산다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내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고생 끝에 아이가 있어도 좋다는 곳을 만났다. 눈이 번쩍 띄었다. 부동산 소개 업자의 입화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는데 “鄭準讓”라고 쓰자 여주인의 얼굴표정이 이상해 졌다. 그때까지 날 일본사람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남편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으니 남편의 허락을 받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화가 별걱 나서 계약서를 북북 찢어 테이블에 내던지면서 “이러면 끝난 것이지. 다시 연락할 필요도 없고”

일본인 주부는 얼굴이 굳어지며 아무 말도 못했다.

훗날 프리랜서 카메라맨으로, 서울을 자주 찾던 桑原使成에게 “너희 나라는 살면 살수록 정나미 떨어지는 나라”라고 분풀이 했더니 얼굴이 벌게지며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말도 못했다.

권숙정과 선우연이 청와대비서관으로 들어가고 유신이 선포되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국구에 두세명의 청와대출입 기자들이 포함됐다.

최고봉에 오르면 마음이 허허해지는 모양. 본사에서 내 체재비를 보낼 생각도 않는 것 같았다.

“신아일보 살리기야 간단하지” 그러나 일이 꼬인 모양이다. 답답해서 본사

업무보고를 핑계 삼아 서울에 왔다. 사장실로 들어서자 張사장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눈엔 눈곱이 끼어있었다.

거래은행에서는 연수표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 건가고 독촉이었다.

나는 李洛善 상공부장관을 방문했다. 차대통령이 샌님으로 알려진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신아일보 건’ 서류는 김비서실장의 책상서랍속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

李장관이 “실장님 그 건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래서 李장관은 무역협회를 통해 재벌들에게 출자하도록 했다.

安東농림동기동창인 張基鳳 사장을 불렀다. 주식을 50대50으로 하도록 권했으나 張사장은 “각하가 말씀하셨습니다...”하며 버텼다. 재벌들이 무턱대고 돈을 내겠느냐고 설득했으나 고집을 꺾지않았다는 것이었다. ‘신아일보 살리기’는 깨어지고 출자한 자금은 ‘무역통신’으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나는 李장관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그의 집무실을 나왔다.

두 번에 걸친 일들이 모두 허사로 끝내버려 나는 허탈하기까지 했다. 사장실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에도 들르지 않았다. 내가 몸담았던 신문사는 왜 이런가. 허망했다. 소斗燠이 집권하자 신아일보는 언론통폐합으로 문을 닫았고 부산의 민주신보도 같은 꼴이 됐다.

도쿄로 돌아온 나는 취재의욕도 잃고 멍한 상태였다. 어느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전화가 왔다. ‘한강 땅’을 팔기로 모두가 합의했으니 인감도장을 보내달라는 통첩이었다.

왜 판단 말인가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인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한강 매립지를 기자실이 인수하게된 경위는 어느날 차대통령이 이후락 비서실장에게 우리 청와대 기자들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머리회전이 빠른 이 실장이 “각하 거의 전셋집에 살고있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유지나 국유지를 불하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자실은 모두가 환호했다. 그러나 서울 근교 어디에도 반듯한 2.3천평의 땅은 아무리 뒤져도 나타나지 않았다. 용케도 토지개발공사가 한강을 매립하여 생긴 동부이촌동에 약3만평가량의 대지가 있었다.

차대통령의 한마디가 위력을 발휘했다. 기자들이 선출한 추진위원은 동양통신의 문태갑과 한국일보의 임 삼이었다.

약 3천평가량을 불하하여 20여명의 기자들이 100평 또는 150평으로 분할하여 불하 받았다. 감정원의 감정평가도 아주 싸게 나왔다. 문태갑과 임 삼의 수고가 너무 많았다.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여러번 독촉전화가 왔다. 저혼자 똑똑하게 군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는 귀찮아서 매각동의서와 인감도장을 우송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일본에온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택지매각대금과 인감을 찾아가라는 말이었다. ‘데이코쿠’호텔로 갔다. 張사장은 한화몽치를 내 놓고 택지 대금이라고 했다.

“이돈 일본에서는 페이퍼머니입니다. 엔화로 바꾸어주시시오” 장사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내일 오후2시에 다시 오라”고 했다. 나는 인감도장만 받고 돌아섰다. 다음날 다시 갔더니 엔화로 바꾸어져있었다.

1기 전국구 임기가 끝났을때 청와대출입기자 가운데서 임 삼만이 2기에서 탈락했다.

5년3개월을 한강 땅 매각대금으로 버티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사표를 냈다. 나는 퇴직금도 도쿄체재비도 청구 하지 않았다. 물론 지불 능력도 없었지만 [\[필자주\]](#)

필자註 그동안 ‘그때 그일들’을 애독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자에게 연락 하실분은 010-5528-691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大韓言論人會 新入회우 환영합니다



강병우(姜炳宇) = 1942년 생. KBS 보도국 기자, 편집본부장, 제작단 사장, 환경와우TV 회장. (현) S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513 판교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 1108-802
(우) 463-410 전화 011-303-1771



윤재홍(尹在洪) = 1946년 생. KBS 정치부 차장, 전 국부장, 제주총국장. (현) 경기대학교 정치매체관리학과 학과장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92-25 (우)120-824
전화 011-327-0099



조광식(趙光植) = 1938년 생. 일간스포츠, 라디오서울 체육부, 동아일보 체육부장, 문화방송 스포츠국장, LG스포츠 상무이사, 한국체대 사회체육과 강사, (현)한국체육언론인회 고문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65(102호) (우)122-825 전화 02-309-4648



김응환(金應桓) = 1945년 생. 조선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 인천시 서구 마전동 동남2차아파트 101-1302 (우)404-260
전화 031-566-3383



윤홍섭(尹鴻涉) = 1945년 생. MBC 보도국 카메라 취재기자, MBC홍콩특파원, 영상편집부장, 보도제작국 제작위원(부국장),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장
서울 강남구 도곡1동 한신아파트 1-1106
(우)135-859 전화 011-384-0073



조광현(曹匡鉉) = 1934년 생. 대한일보, 라디오서울 정경부, KBS 방송위원, 해설위원, 서울 시청자문위원, 샌프란시스코 한국어TV(KBC) 상임고문
서울 강동구 상내1동 459-2 청구빌라트 901 (우) 134-848
전화 02-478-3373



설임윤(薛仁潤) = 1950년 생. 충청일보 편집부 차장,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편집전문위원,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부국장
서울 강서구 방화동 879 월드메르디앙 201-1202 (우)157-220
전화 011-320-9310



이영일(李榮一) = 1944년 생. 동화통신, 합동통신, 동아방송 방송뉴스부, 현대그룹 홍보실장, 문화일보 부사장 (현)드림랜드 사장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상지리츠빌 (우)135-800
전화 010-8776-9887



한양인(韓亮仁) = 1943년 생. 신아일보, 내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편집국 편집 교열 차장,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한국교열기자협회 회장, 정부언론 외래어 공동심의위원
서울 강남구 일원2동 615 우성7차아파트 105-103 (우)13964 전화 02-445-5166

言論街 소식

한국언론 진흥재단 출범식 이성준 회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식에서 참석 인사들이 제막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성준 이사장(본회회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형오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상 국회 부의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본회회우),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

이성준 회우(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는 2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3개의 신문산업 지원기관이 통합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다.

이성준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신문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하는 데 모든 업무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 저작권 관리,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모델 구축, 언론인 전문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정부 광고대행제도의 개선이 언론진흥재단의 중점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언론산업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문]

신문의 날 표어·포스터 공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54회 신문의 날 및 신문주간을 맞아 표어 및 포스터를 현상공모 하고 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공모부분 : 표어/포스트(일반부/학생부-초·중·고)

▲응모기간 : 2010년 2월 1일(월)-28(일)

▲출품요령 : 출품규격을 준수하여 공모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는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 www.press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

용)

▲출품작수 : 표어 2점, 포스터2점 이내

▲규격 : 표어20자 이내, 포스터 4절 (39.4×54.5)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1302호 (Tel. 02-733-2251~2, Fax. 02-720-3291)

▲응모 소재 및 시상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MBC뉴스데스크 사과방송

MBC가 지난달 28일 아이티 지진현장에 파견된 강성주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전달한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1일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2월 1일 뉴스데스크에서 “지난주 보도를 통해 ‘도미니카 현지 대사가 구조대가 오는 게 영 탐탁지 않은 반응’이라며 강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이 발언은 강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 발언이었다. 강 대사의 발언을 충실하게 전하지 못해 혼돈과 오해를 낳은 점을 인정하고 외교통상부와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MBC는 지난달 28일 아이티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119구조대원과 현지 외교관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강 대사가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 문제라든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보도가 나간 뒤 인터넷에서는 강 대사 발언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누리꾼의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후 아이티 현지에 있던 119구조대원과 외교관들이 인터넷에 “MBC 보도가 전후 맥락을 왜곡했다”는 증언을 잇달아 올리면서 MBC는 방송 나흘 만에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회우동정

(가나다순)

합동통신 사우회장으로



★구월환 회우 = 2009년 12월 17일 합동통신 사우회 '합우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입 회장으로 선임됐다.

공익광고협 위원장·위원 위촉



★김은구(사진 위), 김휴선(사진 아래) 회우 = 1월 19일 임기 1년의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으로 본회 김은구, 김휴선 회우를 위촉했다.



김은구 회우는 지난해에 이어 위원장에 재선임 됐다.

건국기념사업회 특별강연



★남시욱 회우 = 1월 2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해방정국에서의 대한민국 선택'이란 주제로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의 창립 2주년기념 및 정기총회 특별강연을 했다.

황조근정훈장받아



★마권수 회우 =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임무를 수행한 공로로 2009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세종市 심포지엄 토론 주제



★이재원(전 총무처 1차관) 회우 = 지난 해 12월 17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충청그린문화포럼이 개최한 '세종시의 쟁점과 그 해법' 심포지엄 토론을 주재했다.

뉴스인뉴스 발행 겸 편집인 취임



★장 옥 회우 = 시사주간지 '뉴스인뉴스' 발행인겸 편집인에 취임. 1월 25일 창간축하연을 가졌다.

시사인뉴스는 매주 월요일자로 타블로이드 56면을 발행하고 있다.

올 첫 건강포럼 2월 20일(토) 개최 '노년기 부부성관계 증진법' 주제

2010년도 들어 첫번째로 열리는 건강포럼이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명동 외환은행 앞에 있는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이번 건강포럼에는 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이며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원장인 이윤수 박사가 '노년기 부부 성관계 증진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윤수 박사는 "사람들은 노년의 성에 대해 무지한 편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늙은 부모의 성적능력에 대한 언급조차 망측하다며 회피하기 일쑤지요.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의 노년층은 성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윤수 박사는 그 예로서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서울시 노인의 성' 연구결과 서울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노인 1000명 가운데 28.4%가 월 1회 이상



강사 이윤수 박사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해 실제로 상당수의 노년층은 성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그중 70%가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언론인회 건강포럼(담당자·이보길 행사집행위원장)은 건강포럼의 공동운영자인 이윤수 박사와 2010년 건강포럼은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 위해 건강문제뿐 아니라 노년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연중사업인 전립선 무료진료를 비롯해 안과, 관절관계 무료 진료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년소비자 보호연합회출범



제재형(전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회우는 1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회의 '사단법인 출범·전진대회'를 열었다.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회는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피해예방,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고 '마패시민감시단'을 만들어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행위를 고발한다.



1월 20일 오전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16기 마지막 이사회.

大韓言論人會 16期 마지막 이사회등 열려

2009년도 정기감사가 1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윤익환, 전신병 두 감사에 의해 실시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본회 재산변동사항과 2009년도 결산, 대차대조표 등 회계감사와 사업수행 실적 등 업무감사가 동시에 진행돼 정관과 제반 회계원칙대로 수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회 감사보고서를 준비했다.

제 122차 이사회가 1월 20일 오전 본회 회의실에서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결산안, 2010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강병우 회원 등 신입회원 9명의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의료비 지원도 승인했다.

이에 앞서 2009년도 3차 후생복지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공대식, 박영길 두 회원의 의료비 지원을 의결했다.

또 2009년도 제 3차 자격심사위원회가 1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강병우, 김응환, 설임운, 윤재홍, 윤홍섭, 이영일, 조광식, 조광현, 한양인 등 9명의 신입회원 입회를 의결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퇴직 사실이 없이 신문사 임원을 맡고 있는 신청자 한 명은 가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 알림

★ 고 이정석 전 회장의 추모문집 출판 기념회가 2월 1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부음

★ 황우권 회우 = 1월 30일 모친상

▶ 자녀결혼

★ 손주환 회우 = 1월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아들 결혼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세경 회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금마마을 주공 그린빌4단지 406동1101호 (우)446-739

★ 김진섭 회우 = 서울 영등포구 양평3가 102 우림 루미아트 101-1701 (우)150-103

★ 심재복 회우 = 서울 은평구 진관동 20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28-405 (우)127-738

★ 이흥우 회우 = 서울 마포구 대흥동 660 마포태영아파트 107-303호 (우)121-764

▶ 발전기금

★ 오판룡 회우 = 오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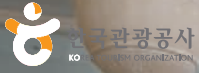
▶ 회비납부

2010년

강진형	계성일	곽노형	구만완
김관태	김귀제	김규문	김기원
김길홍	김담구	김두근	
김상수(09.10년)	김성수	김세경	
김양섭	김윤덕	김준하	김호곤
김은구(09.10)	김종범(09.10)		
김준하	김호곤	나용경	노영순
도준호	박기병	박문두	박석홍
박승채	박 실	박재권	성낙오
성재삼(09.10)	송경섭(09.10)		
신성순(09.10)	신현구		
안광식(09.10)	안종우	여구만	
여영무	오판룡	윤양중	윤익환
이성호	이세환	이우진	
이준우(09.10)	이창열	이태영	
이현구	이희경	임판호(09.10)	
정기정	정만호	정용기	정일화
제재형	조성국	지연홍	
한중광(09.11)	홍순일	황대연	

2009년

류철희(09) 손주환(09) 천승준(09)





가격도 서비스도 참~하게!

우리나라 호텔체인, 베니키아-
시설, 가격, 서비스까지
한국관광공사가 고객님보다
먼저 체크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 참

좋은 호텔은 많은데 내게 맞는 호텔은 찾기 힘들죠? 여행을 가시든 출장을 가시든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이제 베니키아로 오세요.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베니키아- 체크인 하시는 순간 베니키아의 모든 것은 당신의 편안한 하루를 위해 움직입니다.

호텔문화의 새로운 기준! 우리나라 호텔체인 베니키아



베니키아 호텔안내 02-728-9730 www.benike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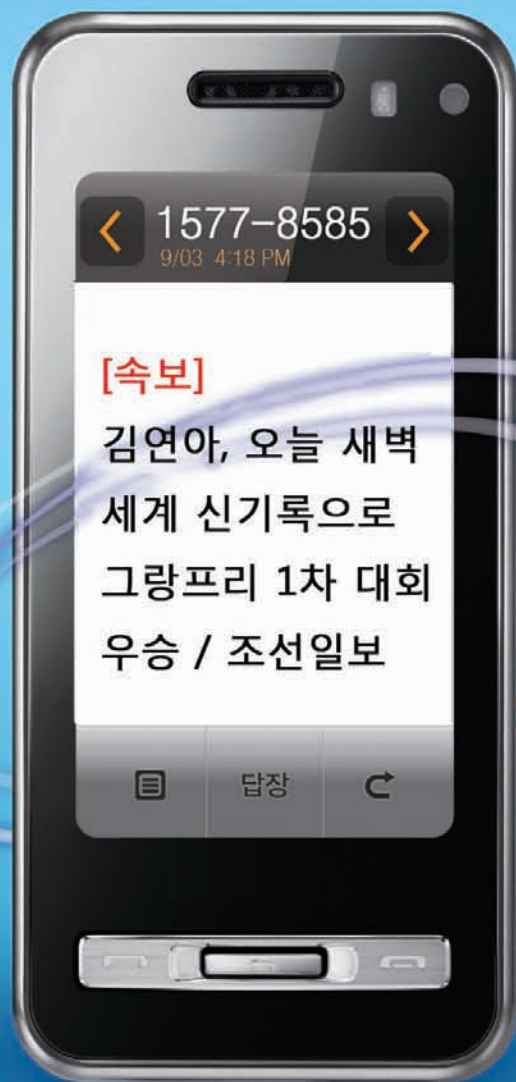
서울 아스토리아호텔(1급), 호텔노스탈지(1급), 비원관광호텔(2급), 가락관광호텔(2급), 호텔비전(2급), 가야관광호텔(2급), 호텔아카시아(미정) 부산 프레스관광호텔(2급) 대구 크리스탈관광호텔(1급) 인천 베니키아프리미어송도브릿지호텔(특2급), 인천공항오션사이드호텔(2급), 위너스관광호텔(2급) 광주 호텔프라도(특2급), 마이더스관광호텔(2급) 경기 송탄관광호텔(1급), 원저개술관광호텔(1급), 벨라지오호텔(2급), 리오관광호텔(2급), 일마레관광호텔(2급), 서원관광호텔(2급), 아시아관광호텔(3급), 호텔아모르&심포니(특2급) 강원 드래곤밸리호텔(특2급), 춘천베어호텔(1급), 경포비치호텔(1급) 충북 단양관광호텔에델바이스(1급) 충남 온양관광호텔(특2급), 가야관광호텔(2급), 에버그린관광호텔(2급) 전북 전주관광호텔(2급), 전주한성관광호텔(2급) 전남 호텔이스턴쥬얼리(특2급), 원도관광호텔(1급) 경북 호텔파크비즈니스(1급) 경남 호텔사보이(1급) 제주 호텔하나(특2급), 제주마리나관광호텔(1급), 오션그랜드호텔제주(1급), 호텔제주크리스탈(1급)

조선일보

1등 신문, 1등 속보

조선일보 속보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세요~!



조선일보 속보는 신속합니다.

조선일보 취재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사건, 사고를 취재합니다.

조선일보 속보는 정확합니다.

1등 신문을 만들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정확한 뉴스 전달을 약속합니다.

조선일보 속보 서비스는?

- 시시각각 발생하는 긴급 뉴스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로 받아 보는 서비스입니다.
- 휴일에 관계없이 월 평균 70~90건 정도 발송되며, 긴급 뉴스 발생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 월정액 2,000원

가입방법 ▶ <http://mobile.chosun.com>, 휴대폰에서 305 + NATE 키, 조선일보 독자센터 (1577-8585), SKT 고객센터(휴대폰 114)

법인/단체 회원 가입문의 ▶ 전화 : 02-724-6209 팩스 : 02-724-6239 E-mail : bbj1224@chosun.com